



'황태자 루돌프'



김제동 토크콘서트

'황태자 루돌프' '레베카' '신승훈쇼' '리쌍·YB 닥공' 등 광주 공연 풍성

오라 공연장으로~ 가슴으로 감동을 느껴라

올해는 어떤 공연을 만나게 될까. 해마다 다양한 뮤지컬이 공연됐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대형 뮤지컬 공연이 드물었다. 광주의 대표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예정된 공연을 살펴본다.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오는 3월 2일~3일 모두 4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황태자 루돌프'는 188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배경으로 루돌프와 그의 연인 베체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

지난해 흥행에 성공한 '엘리자베스'를 만든 오스트리아 극장협회(VBW) 제작진이 만든 '황태자 루돌프'는 '지킬 앤 하이드', '몬테크리스토' 등의 음악을 맡은 프랭크 와일드 훈이 참여한 뮤지컬 넘버가 인상적이다.

주인공 루돌프 역으로 임태경과 박은태가 출연하며 베체라 역은 옥주현·김보경이 맡았다. 그밖에 민영

기·한지연 등이 출연한다.

1월 초 개막, 서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레베카'도 광주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 초연되는 '레베카'는 순수하고 어린 아이 같았던 한 소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이미 죽은 자의 골레를 벗어나기 위해 점차 강인한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긴장감있게 그린 작품이다.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제작진이 참여했으며 유준상·오만석·류정환·옥주현·신영숙·최민철·이경미 등 뮤지컬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그밖에 오랫동안 뮤지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카고'도 다시 광주를 찾는다.

다양한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올해 콘서트의 시작은 송대관과 태진이다. 해마다 듀엣 공연을 열어온 두 사람은 올해도 '송의 전성'이라는 타이틀로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 광주 공연은 오는

2월 23일(광주문화예술회관)로 예정돼 있다.

같은날 김대중센터에서는 '리쌍·YB 닥공'이 열린다. 지금까지 단독 공연을 펼쳐왔던 YB밴드와 리쌍이 기특하게 마련한 '닥공' 시리즈는 지난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발라드 황제' 신승훈 콘서트는 오는 3월 9일~10일 열린다. 'The 신승훈 쇼'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밖에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어반자카파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2월 2일~3일(광주문화예술회관)에는 김제동 토크 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4'가 열린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한 '토크콘서트'는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았다.

또 임형주 콘서트 '오리엔탈 러브'도 4월께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 초청 콘서트

■유·스퀘어문화관 1년 사업계획

유·스퀘어문화관은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관객이 다녀가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역시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 초청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대기 중이다.

▲금호아트홀
올해 첫선을 보이는 사업은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콘서트다. 참여 아티스트는 쿠리타 아사오(피아노), 김원호(바이올린), 사바카 세리나(첼로)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권혁주, 노부스 프렛 등을 초청, 클래식팬들에게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줬던 '금호아트홀 스페셜리스트 시리즈'는 올해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5월에는 젊은 스타급 연주자들이 뭉친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가 공연을 가지며 피아니스

트 김다솔의 독주회도 추진 중이다.

또 서울금호아트홀이 주관하는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공쿠르 우승자인 피아노 트리오(정규빈·서유민·오혜린)의 공연도 예정돼 있으며 금호주니어콘서트 출신 연주자들의 앙코르 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오는 2월 27~28일 오디션을 통해 연주자를 선발하며 7월~8월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동산아트홀
유·스퀘어문화관의 대표 기획인 'Good 공연 시리즈'는 뮤지컬 '짝사랑' 등 서울 대학로에서 인정받은 탄탄한 작품들을 한달씩 장기공연,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첫 무대는 코믹 뮤지컬 '달콤·달콤네 콤플렉스'(25일~2월 23일)이다.

지역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는 기획 공연도 눈길을 끈다. 광주학생연극제와 대학연극제 수상작품을 초청



갤러리로 변신한 유·스퀘어문화관 로비.

해 무대에 올리며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참여 극단들과 '유·스퀘어씨어도 페스티벌(가칭)'도 기획 중이다.

그밖에 유·스퀘어문화관 3층 라운지와 금호터미널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벽면을 갤러리로 꾸며 문화관 소장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문화관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통로는 시민참여형 갤러리로 꾸밀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폴리II 프로젝트' 시민협의회, 컨셉·디자인 논의

각 작품마다 기관·단체 참여... 광주 철학 담는다

올 봄 광주 도심 풍경을 바꾸게 될 '광주 폴리(Folly)II' 프로젝트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 폴리II'는 지난 2011년 설치된 광주 폴리과 달리 각 작품마다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6일 '광주 폴리 추진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개최하고 폴리 참여 작가들의 컨셉과 디자인 초안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렘 콜하스(네덜란드)와 잉고 니어만(독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질문과 보행자의 보행 방향 선택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컨셉으로 한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두 작가는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질문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아자예(가나)와 타이에 셀라시(미국)는 광주청 양동시장 인근 잠경다리에 '양동시장 인근 보행자를 위한 독서실'을 기본 컨셉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작은 도서관 사업과 연계한 작품을 선보인다.

수퍼플렉스(덴마크)는 광주공원 입구 화장실을 작품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며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인도)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 지하철 1량에 디자인을 입힌다.

아이 웨이웨이(중국) 작품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 카트 포장차'도 눈길을 끈다. 대리인을 통해 광주공원에서 포장차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아이 웨이웨이는 이동식 포장차 1~2대를 설치한다.

그밖에 고석홍·김미희(이상 한국)는 공모전에 당선됐던 '메모리얼 박스'와 연계해 금남지하상가에 보관함 컨셉의 작품을 설치하며, 서도호(한국)는 '2012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던 '틈새호텔'을 보완 중이다.

이날 열린 시민협의회에서 위원들은 1차 폴리에서 문제가 됐던 장소 선정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

■광주 폴리II 프로젝트 작가별 기본 컨셉

작가명	장소 및 컨셉	
	장소	컨셉
렘 콜하스(네덜란드) 잉고 니어만(독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질문과 보행자의 보행 방향 선택 여론조사
데이비드 아자예(가나) 타이에 셀라시(미국)	광주청 양동시장 인근 잠경다리	양동시장 인근 보행자를 위한 독서실
수퍼플렉스(덴마크)	광주공원 입구 화장실	유네스코 삼익위원회 화장실 복제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인도)	이동식	지하철 객차: 이동식
에말 와이즈먼(이스라엘)	광주역	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 제시
아이 웨이웨이(중국)	이동식(장소미정)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 카트 포장차
고석홍·김미희(한국)	금남지하상가	보관함 컨셉 소개 - 메모리얼 박스의 연계
서도호(한국)	도심통새, 이동식	2012광주비엔날레 출품작(안료)

으로 논의했다. 또 시민체험형 작품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시스템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작가들이 강조한 철학과 광주 도시 이미지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더욱 부각해 달라는 주문을, 수퍼플렉스의 작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형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 하기도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미개발 지역에 대한 폴리 설치 이야기도 나왔다.

비엔날레재단은 시민협의회 의견의 작가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2월 본격적인 작품 설치 공사에 앞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이미지와 작품 의도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시민협의회 위원 11명 중 심상봉 광주시건축사협회장,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 이순미 폴리를 꾸리는 사람들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작가들 열의 담아낼 수 있는 환경 조성”

광주전남작가회의 총회... 조진태 신임 지회장 선출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15일 광주 북구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진태(사진·전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씨를 신임지회장으로 선출하고 201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매년 실시해온 5월문학제와 인문학포럼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서울과 지역, 광주·전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회가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진태 신임 지회장은 “1981년, ‘젊은 벗들’이라는 문학동인 활동이 떠올랐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지난 30여년 한국 문학의 정서적 원천이 광주전남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시각은 작금의 시대적 요청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며 “할 일이 많아 여가게 무겁지만 회원들의 문학적 성취를 견인하고 작가들의 열의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겠다”고 각오



를 밝혔다.

특히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하나는 도시적 상징으로서 5·18이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의 기초로서 문학”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형적 가치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문학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소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출생인 조 지회장은 84년 무크지 '민중시'에 '어머니'와 5편으로 등단했으며 '다시 새벽길' '희망은 왔다'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박성천기자 j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